

# 지역민들, 지역의료 살리는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열망 높다

###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전체 건물 평균 45년 이상 노후 2년 전 설문 79.2% 건립 필요...정신 병원장 "숙원 이뤄졌으면"

국립대병원 가운데 시설이 가장 낙후한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을 요구하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새병원 건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또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을 약속하면서 예타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 증대=최근 의료계는 전통적인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에서 개인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로 변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IT기술과 의료서비스의 접목으로 의료기관의 사회·경제적 역할 확대 또한 요구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 간 데이터의 상호 교환 및 활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협업 환경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분원 설립 또한 잇따르고 있어,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높아질 경우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보건 의료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역주민의 기대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새병원 건립을 통한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 또한 매우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지역으로 살리기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을 위해 7000억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남대병원 새병원, 왜 필요할까?= 전남대병원은 총 11개의 분동형 건물 중 1967년에 완공된 2동 건물이 가장 노후화됐으며, 1동은 1978년에 준공되는 등 전체 건물의 평균 사용 기간은 45년에 이른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건물구조로 여러 번의 증축을 통해 복잡한 동선 체계는 물론 낮은 층고로 설비의 추가 확장이 불가능하고, 물류 자동화 설비가 부재하는 등 분산되고 이원화된 의료기능으로 협진의 한계성과 불필요한 동선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 및 물리적 한계로 디지털 시스템 도입과 감염병 예방, 환자-의료진 편의성에 대한 제한이 큰 이로 인한 미래 확장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5000여 명의 외래 및 입원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만, 1·2주차빌딩 등 주차 가능한 대수는 1000여 대에 불과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정선(57·광주시 북구 우산동)씨는 "아버님을 모시고 매일 신경과를 방문하는데, 주차할 때부터 너무 불편해 매번 짜증이 난다. 지역 최고 병원인데 이 정도 시설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서울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전남대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불평했다.

◇지역민 설문조사 2차례...새병원 열망 드높아=전남대병원은 지난 2018년과 2022년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광주·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새병원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새병원 건립에



전남대병원은 지역민들의 병원 이용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스마트병원으로의 변신을 위해 새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새병원 건립을 바라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93.4%에 달하는 시민들이 새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건물 노후화(54.7%), 병상수의 증가(51.3%), 주차장 등 병원 부지가 좁아서(41.6%)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600명)에서는 새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79.2%에 달했다. 전남대병원에 대한 주요 시설 및 환경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주차시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 대기공간(36%), 시설 및 환경(29.5%), 진료과 이동 문제(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새병원 건립 시 이용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역시 72.5%가 긍정 답변을, 23.22%가 중도 의견을 냈으며, 부정 의견은

4.3%에 불과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전북과 경남 지역민들도 진료를 위해 찾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라며 "새병원 건립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안인 만큼 꼭 예타가 통과돼 지역민들의 숙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전 학년으로 확대

### 전국 최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2개월간 '지각장려금' 지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초등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사업비 등 총 2억원 4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생 부모 10시 출근제 대상을 기존 1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300인 미만 광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학생 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앞당길 수 있다.

초등 학부모의 근로시간 1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는 광주시가 장려금으로 사업장에 지원한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지각장려금'으로 불리는 등 반응이 좋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올해 상반기 초등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가자(사업장)를 모집해 116건을 운영 중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2개월 간 조정

된 출근시간을 준수한 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 74만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12일 오후 2시부터 광주아이키움(www.광주아이키움.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또는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

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호응이 크다"면서 "앞으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만큼 학부모와 사업장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5·18 관련자 8차 보상금 첫 지급...36명에 7억8500여만원

광주시는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신청자' 36명에게 보상금 7억8501만4470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한 제8차 보상금 신청자 총 1979건에 대해 9차례 관련 여부를 심사하고 인정 104건, 일부인정 10건, 불인

정 28건, 보류 25건으로 결정했다. 또 장해등급판정과위원회에서는 신체 장해등급(외모 흉터) 판정자를 재심해 인정 22건, 불인정 1건, 보류 2건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학사징계로 인정된 42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난개발 없이 전남 섬 세계 관광명소로 가꿔야"

### 김영록 지사 '섬섬백리길' 거점 여수 낭도 찾아 관광발전 방안 구상

전남의 섬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과 협의를 전제로 적정한 개발 기준을 정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김 지사는 10일 남해안 '섬섬백리길'의 거점인 여수 낭도를 찾아 관광 관련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섬 관광 발전 방안을 구상했다.

섬섬백리길은 고흥 영남면에서 여수 화양면을 연결하는 팔영-적금-낭도-둔병-조화대교 등 5개의 연도교로 이어진 20km의 도로를 말한다. 섬섬백리길의 거점인 여수 낭도에는 정부, 전남도의 관광 관련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전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40억원을 지원받아 게스트하우스와 마을식당, 야영장, 마을 탐방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또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억원의 '우리동네 미술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과 여수미술협회 작가가 함께 3km에 이르는 갯바위미술길을 조성했다.

올해부터는 공룡화석지로 유명한 낭도(사도)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2026년까지 173억원을 투입해 길이 890m 폭 3m의 인도교와 각종 편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어항인 낭도항 정비를 위해 2027년까지 국비 272억원을 투입, 호안 476m, 부잔교 2기, 준설-매립을 추진하고 비좁은 마을 진입도로 543m를 확장하는 등 낭도에 각종 사업들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현황을 챙기면서 "섬 개발은 주민들이 잘 협의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는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지분,물건

### 바로 삽니다

010-9552-7900

### 안 팔리는 부동산

### 교환,매매

010-3605-5000

## 군산시 수송동

### 7층 매매

매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ABC협회인증

##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2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세상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